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결정에 대한 입장문

태백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위탁운영 결정의 배경과 추진 경과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공 보건 시설로,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의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운영을 맡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공공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과 지역 분만 의료기관인 한마음산부인과에 위탁운영 참여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기존 진료체계 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위탁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마음산부인과 또한 의료 인력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태백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공모 방식의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였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강릉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운영계획의 적정성, 안전 및 감염관리 체계, 인력 운영 방안, 재정·회계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강릉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전문 인력이 담당하도록 운영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탁운영 수익(위탁운영비의 10%)은 산학협력단이 자체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전액을 태백시 모자발전기금으로 환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성과 지역 환원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태백시는 강릉영동대학교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교육, 건강관리, 돌봄 연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 태백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태백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16일

태 백 시